

조선후기 예장용 쓰개류에 관한 고찰

- 簇頭里·花冠을 중심으로 -

전혜숙·박수옥*

(동아대학교 의상섬유학과 교수·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衣冠制度중에서도 관모류는 가장 얼굴 가까운 부분에 위치하는服飾으로서, 衣服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며, 그중에서도 특히 禮裝用 쓰개류는 의식과 관련된 전통성이 강한 쓰개류로, 그 종류로는 翟冠과 花冠 그리고 簇頭里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簇頭里와 花冠이 당시의 사회문제의 현안이었던 가체에 의한 사치풍토의 폐단을 막는 代替用品으로 거론되었다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 고찰하였다.

조선은 儒教를 治國의 지도이념으로 내세움으로써 어느 왕조보다도 뚜렷한 유교국가로서, 문물의 제도적 재정비와 함께 禮學이 강조되어 禮制가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朝鮮中華主義를 꽃피우게 되는데, 17~18세기 말 영·정조시대는 조선사회가 근대 상공업 사회로 변화하는 조짐이 나타난 전환기로서, 문화자존의식과 더불어 北伐大義論을 반성하면서 淸의 문물을 수용하는 北學을 제기하고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적극적 융합을 통하여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사치풍조 중의 하나였던 가체에 대한 代案으로서 족두리나 화관의 사용을 법령화하여 사대부 여인들에게 쓰도록 한 것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와의 융합을 추구하는 그 시대에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簇頭里와 花冠의 원류 및 변모과정과 함께, 시대적으로 부활할 수 밖에 없었던 족두리와 화관을 통해서 반영된 의미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다.

첫째, 簇頭里의 원류는 高麗代에 전해진 몽고의 古古冠에서 비롯된 족두리가 朝鮮後期の 簇頭里로 이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볼 때, 고고가 북방민족의 신앙관이 반영된 관모류에서 시작되어 明代를 거치면서 크기가 축소되고, 본질적인 장식도 변하여 순수한 장신구로써의 장식성만 남은 鈿子로 이행되어, 조선조에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화관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暖額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오히려 족두리의 원형이 되는 鈿子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족두리와 화관의 수식인 색, 보석, 문양 등을 통해 반영코자 했던 부분은 性的結合, 繁榮, 榮華, 長壽, 求福, 富貴 등 현세적인 염원을 모두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가체의 대체제로 부활된 족두리는 사치를 방지하기 위한 장식품이란 용도 외에도, 중국에서 쓰여졌던 관모류를 원형으로 하여 조선 사회에 착용케 함은 조선후기 사회가 추구했던 朝鮮中華主義에 입각하여 만들어낸 시대의 소산물로서 의의가 더 크다고 본다.

또한 당시 보다 앞선 淸의 문물과 제도적 실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많은 부분에서 대내외적 정책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사치의 상징인 가체의 대체용품으로 簇頭里와 花冠이 거론되고 있음에서 허례허식을 버리고 실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조선후기의 實學思想을 엿볼 수 있다.